

불교상담대학원 후원의 밤 행사 열려

11월 25일 세종문화회관사...작품 경매도 이어져



(사진 왼쪽부터)계환 스님, 혜거 스님, 지원 스님, 정만 스님, 도현 스님이 떡 절단식을 하고있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1월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불교상담대학원 대학교 설립과 교육관 봉사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불사 기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후원의 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호계원장 일면 스님, 불교상담대학원 설립추진위원장 혜거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계환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 티베트 불교학자 글렌 멀린 법사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방송인 김병조 씨와 장용

씨의 사회로 홍보영상 상영과 치사, 격려사, 축사, 감사패 수여, 떡 커팅, 기증 작품 경매, 소리꾼 장사익과 고한우, 관우용단의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행사장에서 후원자로부터 기증 받은 서예와 그림, 도자기 등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불사금을 마련했다.

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은 "불교상담은 소통부재에서 오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훌륭한 방편"이라며 "포교의 위상을 높이고 불교의 미래를 위해 '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를 건립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나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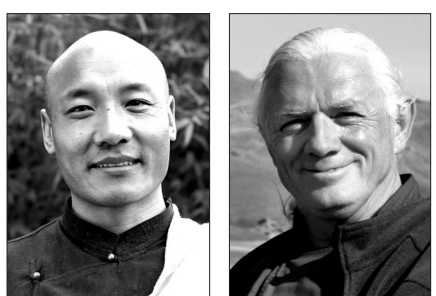
티베트 명상전문가 법회 열린다

동국대 국제선센터 12월 담마토크 아남 툽텐, 글렌 멀린 초청

티베트 명상수행자들의 법문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국제선센터(원장 수불)는 12월 담마토크에 티베트 출신 아남 툽텐(Anam Thubten) 린포체와 캐나다 출신 글렌 멀린(Glenn Mullen) 법사를 초청했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12월 13일 오후 2시 대각전에서 '조진 없는 행복을 찾아서'를 주제로 법문을 펼치며 12~14일에는 동국대국제선센터에서 2박 3일간 명상수련을 지도 한다.



아남 툽텐 린포체(사진 왼쪽)는 12월 13일, 글렌 멀린 법사는 20일 동국대 국제선센터에서 법문을 펼친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티베트 사원에서 보내다 1990년대 미국으로 건너갔다. 20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수행공동체인 다르마타 재단을 설립했으며, 지금은 세계를 무대로 티베트 불교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글렌 멀린 법사는 12월 20일 '자비, 지혜 그리고 힘'을 주제로 법문할 예정이다.

달라이라마의 측근이자 티베트밀교수 전문가인 글렌 멀린 법사는 1949년 캐나다 퀘벡 출생으로 1972년에서 1984년까지 인도의 히말라야에서 티베트 4대 종파의 스승 35명으로부터 교학과 수행을 배웠고 달라이라마의 스승인 캅제트리장 들제창(Kyabje Trijang Dorjechang)으로부터 밀교를 배우고 전수 받았다.

이밖에 12월 6일 미국출신의 한마운선원 청고 스님이 '안정되고 중심 잡힌 삶만

들기'를 주제로 법문을 펼치며 12월 27일에는 인도출신으로 서울대 물리학과에 재학중인 치락 제인(Chirag Jain)씨가 고군분투 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간화선 법회를 열고 있는 국제선센터는 △6일 박규리 교수의 '선이란 무엇인가: 조주의 십이시각' △20일: 황수경 교수의 '마음사 용법-자기 내면과의 만남, 자기사랑과 이해' △27일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와 박찬욱 교수의 '불교적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개최한다.

한편 국제선센터는 '2015 겨울 간화선 집중수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1차 수행은 2015년 1월 7~13일, 2차 수행은 2월 7~13일 각 7일간 진행된다. (02)2260-3891

이나는 기자

걸으며 동물 원혼달래는 '이색 명상'

자비명상공동체 11월 23일 서울대공원과 명상 걷기대회



자비명상공동체(대표 마가)는 11월 23일 서울대공원에서 '가을낙엽길 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 100여 명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동물원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걷기 명상을 통해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이색 명상 프로그램이 열려 눈길을 끈다.

자비명상공동체(대표 마가)는 11월 23일 서울대공원에서 '가을낙엽길 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대공원 30주년 및 한국동물원 105주년을 맞아 자비명상공동체와 함께 마련됐다. 행사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 100여 명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마가 스님은 걷기 명상을 시작하며 "발을 들었다 땅에 닿는 그 순간을 느끼고, 사라짐을 알아차리는 것이 걷기 명상"이라고 지도하면서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림 하라"고 강조했다.

걷기명상이라는 것이 생소한 참가자들에게 마가 스님은 "발에다가 현미경을 놓고 관찰하듯 발을 올리고 내릴 때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자체에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하라"고 설명했다.

20~70대 다양한 연령대 참가 "동물원 명상 인상 깊어"한 목소리 동물 위령비서 희생동물 추모도

참가자들은 숲속의 바람은 촉감으로, 낙엽 밟는 소리는 청각으로 느끼며 걸을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다했다. 잠시 후 동물원 가장 위쪽에 위치한 동물 위령비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서울동물원에서 살다 죽은 수많은 동물들을 추모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마가 스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법문도 이어졌다.

"나와 동물의 관계를 바라보세요.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동물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위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른 생명체들을 힘들게

했는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뜻생명이 희생을 당했는지 성찰해보세요. 우리가 앉아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동물이 서로 공존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로 인해 희생된 동물의 아픔을 느껴보세요. 내가 귀하듯이 다른 존재들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받길 원하는 것처럼 다른 존재들도 사랑받길 원합니다."

이후 명상가수 김무한 씨가 작사 작곡한 '화' '숨탄번' 등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화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음악 명상을 한 참가자들은 코끼리 사육막사로 자리를 옮겨 코끼리와 마음을 나누고 명상의 시간을 지속했다. 마가 스님은 <백유경> 이야기를 설명하며 "눈먼 세상이 자신이 만진 코끼리 일 부분이 전체의 코끼리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편견과 아만에서 온다"며 "전체를 볼 줄 아는 지혜를 명상을 통해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신도지도자 양성 절실...자료 개발 및 교육 필요"

포교원, 신도지도자 교육과정 세미나 개최

조계종의 신도조직을 이끌어갈 신도 지도자인 선혜 품계 품수자를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도지도자 교육과정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유승무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가 '불교지도자 교육의 목적과 필요요소'를 주제로,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가 '지도자교육 과정의 과목과 강의시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응철 교수는 "불교계 대부분 사찰에서 신도지도자 역할을 담당하는 불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그들의 역량과 자질이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신도지도자를 발굴·육성하려면 중단 차원에서 공통적인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정기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신도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층이어서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을 통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연간 2회 이상의 집체연수, 그리고 단위 사찰 스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신도지도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중단 모든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종책적 차원에서 집중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인사말에서 "신도지도자 배출을 위한 지도자 교육에 애정과 관심이 절실한 때"라며 "이번 세미나가 중단 현실에서 시행 가능한 내용인지 함께 검토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도지도자 교육과정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대승불교조계종

중 정 은 파

총무원장 **한파** 원로원장 **현각**

감찰원장 **농파** 총무부원장 **근파**

교육원장 **정원** 포교원장 **혜남**

총무부장 **도일** 재무부장 **묵암** 교무부장 **묘산**

교육부장 **수암** 감찰부장 **능일** 규정부장 **청보**

포교부장 **경암** 사회부장 **혜원** 문화부장 **정암**

홍보부장 **일산**

불기 2558년(2014년) 11월 27일

(사)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

▶ 체탈 도첩 공고 ◀

귀의 삼보 하옵고

본 종단 중헌 중법에 의거 해종행위자로 확인한 바 중법 32조 1항, 중법 26조 4항, 중헌 22조 2항 등에 의거 전 종단 주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 되었으므로 체탈 도첩을 공고 합니다.

● 제적자
만송(홍성익), 인간(한상보), 본지(이성부), 이상 3인

(사)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한파

▶ 직인 효력 무효 공고 ◀

본 종단 직인은 체탈도첩자 종회의장 만송(홍성익)이 소지 하고 있는 관계로 중단 대표자 직인 인감을 2014년 11월 27일부로 그 효력이 무효 됨을 공고 하며, 2014년 11월 14일 만송(홍성익)이 수원 양평 등기소에서 발급한 법인카드도 아울러 무효로 공고 합니다.